



삼성전자, 올해도 '기능대회' 후원 2007년부터 15년간 95억 지원

삼성전자는 우수 기능인력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대전에서 열리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후원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5년 연속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있으며 직종별 우수 선수를 선정해 '삼성전자 후원상'도 수여한다. 올해 대회는 4~11일 대전시 동아미스터교와 충남기계공고 등에 마련된 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지금까지 누적 후원금은 95억원에 달한다.

최형석 LGD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최형석 LG디스플레이 부사장(사진)이 5일 '제12회 디스플레이의 날'을 맞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IT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최 부사장은 지난 25년간 TV, 모바일, 정보기술(IT) 사업 영역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특히 세계 중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역량을 키운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에 최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제4대 상임감사에 최도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장(58·사진)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3년. 최 선임 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지원정책과장, 과기정통부 생명기초조정과장·연구예산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구글 디자이너 김은주, 3천만원 기부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은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 저자 김은주 씨(사진)가 책의 인세 수익 일부인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은 비수도권 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 연임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방문석 제4대 병원장(사진)이 연임한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년. 방 병원장은 2019년 임기를 시작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재활 연구 활성화를 이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상 바꿀 아이템 찾으러 구글 박차고 나왔죠”

구글 자율주행기업 '웨이모' 고우종 전 엔지니어

고우종 전 웨이모 엔지니어(36·사진)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일반적이지만 선택을 했다. 미국 명문대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앞두고 학업을 중단한 게 대표적이다. 학부 시절엔 동기 열애가 선택한 전자공학 대신 컴퓨터공학을 전공으로 골랐다.

고씨의 결정엔 본인만의 원칙이 있다. '10년 후 미래'를 고민해보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대학원을 마치지 않고 구글 자율주행팀 입사를 택한 것은 '구글에 일찍 합류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이 학위보다 훨씬 가치있을 것'이란 확신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옳았다. 구글 자율주행팀은 독립해 웨이모가 됐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고씨는 석 달 전 일반적이지만 결단을 또 내렸다. 구글 계열 자율주행차 서비스 개발사인 웨이모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퇴사했다. 고씨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웨이모가 직원이 3000명 규모의 회사로 커지면서 엔지니어 한 명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시점



UC버클리 박사 포기하고 취업 “자율주행 트럭·AI 상용화 관심 10년후 미래 고민하며 창업 준비”

은 지났다"는 생각이 퇴사를 결심했다"며 “10년 후 지금의 자율주행차처럼 세상을 바꾸는 제품을 찾아서 스타트업에 키워 보겠다”고 말했다.

웨이모를 떠났지만 웨이모의 미래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웨이모의 사업모델은 쉽게 말해 '자율주행 택시'다.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등에서 영업 중이다. 장거리 주행보다는 도시 안에서의 단거리 주행을 주력한다. 그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운전자 인건비

를 줄일 수 있다”며 “운전 부주의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습관처럼 '10년 후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건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생각하는 게 재미있고, 가능하면 미래에 남들보다 먼저 가서 보고 싶다는 것이다.

최근 고씨는 창업을 준비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조언을 듣고 있다. 그는 창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싶다고 했다. 최근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10년 뒤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한 것이다. 고씨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같은 환경 변화가 눈에 들어온다”며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트럭, 건설장비 같은 분야에 시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쪽에선 전기차로 이어진 흐름이 항공우주 쪽으로 갈 것 같다”며 “소프트웨어에선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AI)의 상용화로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도 관심사”라고 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최종태 아마젠그룹 회장, 어머니 이어 무궁화훈장

재일동포 권익신장 기여 '세계한인의 날' 88명 포상

재일동포 기업인인 최종태 아마젠그룹 회장(69·사진)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재외동포 중 어머니 이어 아들도 무궁화훈장을 받은 첫 사례다.

5일 외교부는 서울 광장동 그랜드위커피 힐호텔에서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매년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맞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최 회장은 기업인 운송회사를



효고정년회의소(재일 JC) 회장을 지내는 등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1980년대 일본 정부가 재일동포들의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려고 했을 때는 이에 반대해 '지문날인 거부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효고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한·일 간 경제 교류에도 힘을 쏟았다. 재외동포로는 처음으로 국내 대한골프협회 이사에 올

라 '한·일 골프 국가대표 친선경기' '다이센 컵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분야 교류에도 앞장섰다.

최 회장의 어머니 고(故) 권영주 여사는 1994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권 여사는 재일거류민단 부회장 겸 재일대한부인회 회장을 지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본국과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민훈장 모란장에는 구자선 평택식품 대표가, 동백장에는 이강현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 8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구 대표는 42년간 캐나다 토론토 한인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태용 기자

인사

- ◆서울아산병원>정리병원추진단장 최기준>커뮤니케이션실장 노영진
◆차병원·바이오그룹>차미래의학연구원장 장영수
◆바베파파>부시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김상국
◆한국교통연구원>철도교통연구본부장 이호
◆에너지경제연구원>부원장 양의석>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이유수>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정준환>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석유정책연구팀장 김태현>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에너지연구팀장

- 마용선>감사실장 정원용>경인지원실 재무회계팀장 남규민>연구기획조정실 예산기획팀장 안병영
◆스마트에프엔>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민병오
부고
▶박승준씨 별세, 심순희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 남편상, 박우정 미래엔지니어링 부장·박신영 아시아문화교류재단 부원장 부친상, 이창진 두산중공업 차장 장인상=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 20분 02-310-2000
▶이을복씨 별세, 박진원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

- 소 사무처장 모진성=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6일 02-2227-7500
▶조광삼씨 별세, 김대영 광주과학문화협회 이사장 모친상, 김광열 매일약국 경영·김정현 前 고려교 교사·최창수 NH농협은행보훈 대표 장모상=5일 광주 만평정례식장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062-611-0000
▶조동수씨 별세, 조성훈 前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조성훈 前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조정훈 후배서·오투 전무·조세훈 KB국민카드 부장 부친상=4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발인 6일 오전 7시 033-744-3970

환경에세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yskys2020@naver.com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일

평균 기온이 4도 오르면 지구는 5억 명의 인구조차 부양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라며 문명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지구 종말에 관해서라면 그 일이 실제로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다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현 단계에 가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지난 몇 년간 페플라스틱 용기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머지않아 ‘쓰레기 팬데믹’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오늘날만큼 지구인들의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이토록 뜨거운 적도 없었다.

최근 ‘제로 웨이스트’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을 구매하지 않을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자발적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제로 웨이스트의 일환으로 포장 없이 세제나 화장품 등 내용물만을 소분 리필하는 ‘리필스테이션(리필숍)’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00개가 넘는 제로 웨이스트 숍이 있는데 화장품 리필 판매가 가능한 곳은 최근까지도 10곳 남짓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판매 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환경부 규제 때문이었다. 다행히 최

근 환경부는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자격증이 없어도 위생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샴푸, 린스, 액체비누, 보디클렌저 등 4종의 화장품을 리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지구 종말에 관해서라면 그 일이 실제로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다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우리나라도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면 추후에는 취지에 맞게 리필문화를 확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리필스테이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환경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회적 효용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다.

기후 위기에 따른 지구 종말이 머지않았다며 불안함을 조장하는 방식만으으로 과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과학적 사실과 숫자에 근거해 종말 시기를 예측하고 환경 파괴의 주범을 찾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해나가는 환경부 규제 때문이었다. 다행히 최

허창수 회장 “혈액수급 극복에 기업이 앞장서야”

전경련·대한적십자사 협약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왼쪽)는 5일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오른쪽)와 ‘코로나19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전경련과 대한적십자사는 △회원사의 정기적 헌혈 동참 △건전한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허창수 회장은 “혈액 수급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황정환 기자



◆알림=기사 넘쳐 '제25기 하림배 프로 여자국수전'은 쉽니다.

2021 한중일 바둑대축제 Korea, China and Japan Baduk Festival. Includes details about dates (2021. 10. 4. ~ 10. 31.), location (hankyungbaduk.com), and program highlights like team matches and online tournaments.